

Stainless 鋼(不銹鋼) 發明

브레리와 헤인즈의 有功

獨逸의 P. 모날트는 1911年에 스테인레스鋼에 대한 獨逸 特許權을 取得하였으며 또 같은 해에 炭素가 含有되지 않은 크롬鋼의 耐蝕性에 대하여 論文을 發表하였다.

한편 英國의 하리 브레리와 美國의 엘우드 헤인즈도 각각 말틴사이트系와 페라이트系合金의 發見者가 되었으며 그들이 이같은 合金의 用途와 商業的 價值를 비로소 分明히 하였다.

스테인레스鋼은 鐵을 主成分으로 하고 어느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크롬과 그에 원하는 性質을 주기 위하여 必要한 몇 가지 元素로서 이루어지는 耐蝕性 合金이다. 12—30%의 크롬과 0.01—1%의 炭素를 含有하는 合金이 基本的인 스텐인레스鋼의 範圍를 表示하여 거기에다가 7~35%의 닉켈이 더해지면 대체로 3그룹의 스텐인레스로 分類된다.

하리 브레리는 治金學者이며 1912年에 스텐인레스合金을 發見하였다. 그는 海軍의 銃炮用耐蝕食合金의 開發을 바라면서 鐵, 크롬合金이 이것이 아닌가 하여 몇 種類의 實驗을 계속하였다.

그가 電氣爐에서 만든 合金의 하나는 12.8%의 크롬과 0.24%의 炭素를 含有한 것이며 이合金鋼을 热處理하면 耐蝕性을 지닌다는 것을 發見한 것이다. 이때 브레리와 토마스 파스 製鋼會社사이에 複雜한 紛爭이 發生했다. 理由는 軍部에서 大砲製造目的으로 提示한 鋼과는 無關하기 때문이다.

브레리는 이 合金鋼을 칼種類의 用途에 쓰도록 提唱하였으며 파스會社도 그의 意見을 받아들여 나이프를 만들게 한 바 成功하였다. 이러한 經緯를 거쳐 파스는 1914年에 生產하였고

1915年에는 파스 스터링工場에서 말틴사이트系合金을 生產하기에 이르렀다.

1915年에 브레리는 美國에서 特許를 取得하였고 브라운 베이리製鋼所는 역시 말틴사이트系合金의 發展物인 페라이트系合金을 商業的으로 生產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美國의 에르우드 헤인즈도 말틴사이트系合金鋼의 發見에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그는 1884年에 텅그스텐 크롬鋼의 製造法을 發明하였다. 그는 또 코발트와 크롬, 그리고 텅그스텐의 合金인 스티라이트를 發見하였다. 1912年的 工具用合金의 追加實驗에서 耐蝕性의 크롬·鐵合金을 또 發見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에 特許出願하였으나 新規性이 없다 하여 拒絕查定되었다. 그러나 再出願하여 1919年에 特許權을 取得하였다.

美國의 大企業들로 構成된 業種團體는 이 헤인즈의 特許를 讓受하여 合金鋼製造에 獨占權을 行使하였다.

또 오스티나이트系의 合金에 대해서도 獨逸의 크루프會社研究部의 에드월드 마우젤과 벤슈트라우스가 크롬 닉켈鋼의 研究結果를 特許出願하였고 1912年부터 크루프會社는 合金鋼의 製造를 시작하였다.

이같이 스텐인레스鋼의 發明에는 複雜한 發展史를 지니고 있으며 今世紀 最初의 10年間은 治金學者들이 그룹의으로 스텐인레스鋼의 合金을 만들기는 했으나 耐蝕性은 불랐었다.

그러나 브레리와 헤인즈는 한 사람은研究所에서, 한 사람은 個人發明家로서 스텐인레스鋼의 開發에 成功하였고 크루프會社는 오스티나이트系合金鋼의 商業化에 貢獻한 것이다.